

우리가 꿈꾸는 교회 9 – 환상과 비전은 다르다

여호수아 14장 6-12

6.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졸았으므로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졸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현실 인식!

현실 인식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과 위치가 어떠한지를 자각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각하게 하시는 위치는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오늘, 제자로 살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화면에 가장 먼저 뜨는 질문은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겠습니까?”이다.

답은 뻔하다. 그렇지 않은가?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예”를 터치하면 곧바로 내비게이션이 내가 처음 출발했던 곳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경로를 다시 계산한다.

‘물리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답이 왜 ‘영적’으로는 힘든 것일까?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먼저 자신의 삶부터 쟁기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의 주변을 좀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처럼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출발하기를 원한다.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 죄의 굴레에 갇혔는가? 그분의 끝없는 긍휼 속에서 자유를 얻으라. 전에도 이 길로 가봤지만 결국 실패했는가? 그분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 혹시 길을 잃었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 있는 곳에서 지금 당장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놀라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해도 좋다.

자신의 능력과 위치만을 가지고 현실을 인식하면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인식에서 참다운 비전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두 가지 인식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12절.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처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때로부터 45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85세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에 나가 싸워서 땅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하나의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것이죠.

비전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며 허황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비전과 착각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환상이나 신기루가 아닙니다. 비전이란 실제적인 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이라는 말이 현실 가능성한 타당성에 기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신 ‘선포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승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잠시 성공을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늘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목표는 있었지만 ‘선포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선명하게 선포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닥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인도하시는

선명한 비전을 우리의 눈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온갖 우상이 난무한 이방의 신들을 몰아내야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선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의 백성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일은 잠시의 성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희 목사가 쓴 [가나안에 거하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라서 그곳을 택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 그 땅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어 진멸시키라고 하셨던 것이다. . .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을 심판했듯이, 이번에는 그들이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자신들의 죄악을 심판받게 되었다.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가나안 거민들이 당한 일을 그들도 그대로 당했다. . .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신명기고,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는 이야기가 여호수아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생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동화되어 가면서 저지른 죄악상의 기록이 역사서다.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죄악 된 길에서 회개하고 바알 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지만 (소 예언서)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바알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다. . .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 불순종함으로 2년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간 이야기는 주야장천 하지만, 가나안에서 실패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까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비전은 단지 환상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선명한 비전을 붙잡지 못하는 한, 이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처럼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선명한 비전을 소유하려면. . .

조금 더 자세히 본문 속의 주인공 갈렙을 통해 선명한 비전을 갖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 14:7에 보면,

7. 내 나이 사십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첫 번째 시각적 단계에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족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침투하게 되었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26-33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하며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보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한 대로**” 무엇에 성실한 대로 보고 하였을까요? NIV 성경에 의하면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대로 보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슨 차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전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으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자신의 판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의 근거는 늘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귀한 믿음의 사람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갈렙은 자신이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두려움에 떨었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땅,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비전으로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나이 85세에 갈렙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소위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의 명예를 안고 역사 속에서 기억 될 동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잘 공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끝까지 지키며 30년의 세월을 지났을 때,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옥같은 요한 1, 2, 3서의 사랑의 말씀을 기록할 만한 사람으로, 밧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주신 비전을 품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위에서 인생의 문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누르는 것은 진정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자녀들에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약4:2)”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장애로 인하여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꿈꾸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년 전 우리가 함께 목상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6일 글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빛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주 멋질 날이죠.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슴 속에 주신 것을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소유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우리가 품은 비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언어적 단계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본 것을 가슴에 묻어 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보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repor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 것을, 자신의 확신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주 신문에 이런 아티클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 내어 읽기 전략의 놀라운 힘> 뇌 전문가들은 소리 내어 읽는 훈련을 많이 경험하면 광범위한 영역의 뇌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자기가 내뱉은 소리를 들으며 재 표현하는 내용은 기억하기도 쉽다고 한다. 하나의 감각을 쓰는 것보다 여러 개의 감각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뇌를 더 많이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책을 소리 내어 읽은 내용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효과도 있지만 읽기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커진다.

일본 도호쿠대학교 가와시마 류타 교수는 어떤 행동이 뇌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다 소리 내어 읽기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소리 내어 읽기를 할 때는 생각하기, 글쓰기, 읽기를 할 때보다 월등히 많은 뇌신경 세포가 반응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전체 뇌신경 세포의 70% 이상이 반응했는데, 이는 목독이나 그저 외우기 등을 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따라서 기초 읽기의 방법을 학습 중인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글을 소리 내어 읽는 훈련은 뇌의 영역별 활성화와 함께 집중력 향상, 문자와 소리의 연계를 통한 음가를 익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정확하고 빠르게 혀를 놀리면서 다음에 읽을 것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과정 등은 뇌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는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비전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예배시간마다 “vision sharing”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제게 주시는 꿈을 나누었습니다. 이 꿈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아실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의 삶을 채찍질 합니다. 꿈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질적인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꿈이 자신의 생각이라면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금방 실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교회 성전을 이렇게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원로목사님이 늘 이 자리가 차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조급해 하지 말아라, 버스가 출발하면 정거장을 지나서 차는 것이지 처음부터 차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너무나 무모하게 성전을 건축해서 고생만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특별 행사를 하거나,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때는 방송을 연결하고, 아래층까지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꿈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꾸었던 꿈을 우리의 시각과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기를, 그 때 보았던 꿈, 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꿈과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이 확신이라면 우리는 성실하게 'report'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 70-80명 정도의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배에 대한 비전과 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한번도 시작해보지 못했던 해외 단기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 할 때, 아무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형식을 바꾸고, 새로운 찬양과 기도가 시작됐을 때, 비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용어로 "contemporary worship"이라는 말을 제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용어자체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이 예배에 관한 가장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6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필리핀으로 단기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직접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지경을 넓혀 일본으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우상의 나라에서 우리는 2주를 머물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 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많아진 예배인원 때문에 예배실을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꿈을 이야기했을 때, 늘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것을. 때로는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통해 나의 비전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하나님은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기 위해 40년의 광야의 훈련과 시험을 거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보았던 비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모두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과거에 집착하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옛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꿈을 포기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의 기를 꺾으려 해도 꿋꿋하게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어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꿈꾸는 자들에게는 환경도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M -Vision을 통해 우리는 10년전 비전 2020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강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료)

세 번째 비전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수반됩니다.

갈렙은 믿음의 행동으로 그의 비전을 이루었으며, 그 땅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종직자들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를 통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실수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자는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단지 성공으로 나아가는 장애를 한 가지 제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신실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짐 푸트먼의 [교회는 팀이다]라는 책을 보면, 참다운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에게는 초보 수준의 봉사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포츠에 열성적인 친구와 TV로 미식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는가? 그는 TV를 향해 소리를 질러댄다. “84번에게 패스해. 그쪽 길이 열려 있어! 그쪽이 열려 있다고!” 그러나 선수가 공을 빼앗기고 비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 친구는 몹시 실망한다. “저런 멍청이! 84번 쪽이 열려 있었는데.”

그 선수가 84번을 보지 못할 수 있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을 뒤쫓는 140kg의 거구들과 앞을 막아선 2m의 수비수에 막혀 보지 못했을 수 있다. 우리는 정작 자신이 경기에 뛴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선수들을 쉽게 비판한다.

관중석에 앉아 비판만 하다가 경기에 직접 참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리더도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하여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실패를 용납하는 교회에서는 이해와 관용의 분위기가 풍성하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행동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하드웨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바뀌어 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인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up-grade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해 보지 않는다면 좋고 나쁜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는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움직이십시오. 때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실수하지만, 그 실수가 용납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따라 나아가는 비전 공동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지 실수할 뿐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 광야의 학교에서 실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